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기업, 가인PUR 매일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해 작업진행 아르지 · 평량 180g 넘는 종이는 PUR작업 신중히 결정해야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름다운 책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작업으로 PUR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PUR은 핫멜트보다 평균 50%이상 풀을 얇게 칠하면서도 강도와 유연성이 좋은 제책기법이다. PUR전문업체인 가인PUR(대표 이재호)을 찾아갔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PUR작업의 명가 가인PUR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오도동에 위치한 가인PUR. 가인PUR은 PUR전문업체로 유명한 용산PUR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재호 사장이 지난해 3월 용산PUR의 김진현 사장으로 부터 인수한 후 새롭게 바꾼 이름이다. 이재호 사장은 “김진현 사장은 PUR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가인PUR에서 근무하고 있어 PUR 제책 노하우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PUR은 20년 전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해 최근 유럽에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기계의 95% 이상이 PUR장비를 갖추고 있을 만큼 보편화됐으며, 미국 역시 해마다 PUR방식으로 제작되는 인쇄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재호 사장은 “PUR은 책의 어느 부분을 펴더라도 180도로 완전 펼침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페이지에 걸쳐 있는 이미지를 한 장의 사진처럼 볼 수 있다. 친환경기법이기 때문에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에서는 PUR이 아닌 책이 없을 정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록, 사진관련 도서 등에서 PUR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기관 인쇄 발주물에서도 PUR을 반드시 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PUR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PUR이 뭔지 모르는 인쇄사 사장들이 많다. 발주처에서 용역입찰공고를 낼 때 PUR제책이 포함돼 있는 인쇄물을 수주한 인쇄사들이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 우리 회사에 연락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역시 인쇄사와 협업관계에 있는 만큼 PUR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업물 95%가 PUR 방식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PUR제책이 보편화되고,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PUR을 사용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쇄사의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제책사는 2010년 현재 1100여개가 넘지만 PUR 제책을 하는 업체는 10개가 채 안되는 상황이다. 그나마도 서울을 비롯해 과주에 위치해 있어 지방에서는 PUR제책을 하기 위해 수도권업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PUR이 가능한 업체라고 해서 모두 매일 PUR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PUR 전문업체는 가인PUR을 비롯해 2~3곳에 불과하다.

이재호 사장은 “우리 회사명이 가인PUR인데, 이름을 통해서도 전문업체임을 선전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는 전체물량의 95%가 PUR이고 나머지 5%가 일반 핫멜트 작업이다. 다른 제책사들이 핫멜트로 작업을 하다가 물량이 어느 정도 쌓이면 PUR제책을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PUR작업을 하다가 물량이 어느 정도 쌓이면 핫멜트 작업을 한다”고 말했다.

완전 펼침 가능한 제책방식으로는 가장 저렴

인쇄물을 제책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완전 펼침이 가능한 제책방식으로는 링제책, 양장 사철, PUR 등이 있는데, 가격은 링제책 > 양장 사철 > PUR순이다. 수첩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링제

책이 500원 정도 한다면 도록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로 꼬매는 방식인 양장 사철은 400원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PUR은 그보다 낮은 200원 정도면 된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핫멜트보다는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편이다. 이는 PUR 접착풀 때문이다.

가인PUR에서는 독일 헨켈과 미국 듀라의 풀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산 인쇄기와 CTCP장비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PUR접착제도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재호 사장은 “헨켈과 듀라는 가격 및 성능이 비슷한 제품이다. PUR 접착 풀은 가격대가 워낙 비싸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예 공급을 해주지 않는다. 최근 중국산 PUR접착풀이 수입됐는데, 중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실험해보고 있다. 그런데 중국산은 가격은 훨씬 저렴하지만 접착력이 떨어져 실용화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제책기 개조해 사용 가능

가인PUR은 동출의 무선철라인, 스탈접지기, 동우 날개접이, 노드슨 PUR 장비세트, 요시노 YS2700 삼면재단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PUR 제책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PUR 전용 제책기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의 제책기를 개조하는 방법도 있다. 전용 제책기의 가격은 연결 시스템의 사양에 따라 매우 다



1. 접지, 재단실 전경 2. 제책시설 3. PUR풀을 압축하는 모습 4. 독일 헨켈·미국듀라 등 외산 접착풀 5. 중국산 PUR풀 6. PUR은 작업 후 하루 정도 굳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양하지만 일반 제책기보다 고가이기 때문이다. 가인PUR 역시 PUR전용기가 아닌 무선철라인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이재호 사장은 “무선철라인을 PUR 풀 통과 관련 시스템을 개조하면 PUR 전용기계를 도입하는 것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적다. 다만PUR 전용 시스템은 오퍼레이터 1명의 조작으로 PUR 제책 작업의 완전 자동화를 이룰 수 있지만, 개조할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 및 일체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회사 역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0년 동안 무선철 작업을 했던 기술자가 입사했지만 숙련되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렸다.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업 노하우에 대해 이재호 사장은 “PUR은 특성상 경화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시 밀착정도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다음날 아침에 전일 작업한 것들을 세세하게 검사하며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이크기·두께 따라 가격 결정

PUR은 풀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

에 종이의 크기와 페이지에 따라 가격이 산정된다. 그래서 국배판, 신국판, 4×6배판, 4×6판에 따라 페이지 당 단가, 표지날개, 띠지, 커버, 날개접이, 상철무선 등의 가격이 달라진다. 특히 접착 풀은 원가가 비싼 데다가 한 번 사용하면 재사용을 할 수 없어 모두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국배판은 기본 40만원이며, 카탈로그 및 도록은 여기에 15~20만원이 추가된다. 이재호 사장은 “프린팅코리아 잡지를 보니 핫멜트 두께가 1.3mm정도 되는데, 우리가 작업한 PUR책은 풀 두께가 0.3mm로 아주 얇게 도포된다. PUR이 다른 제책 방식보다 어려운 것은 용지의 두께에 따라 접착제의 양을 도포하는데, 이 과정에서 밀착정도에 따라 품질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PUR은 아트지와 평량이 180g이 넘는 용지는 신중하게 작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니인터뷰



가인 PUR 이재호 대표

“ 철저한 품질과 서비스로 인지도 확대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PUR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종이에 매우 민감하다. 한번은 PUR을 해달라고 해서 인쇄사에서 2.5톤 차량에 인쇄물을 싣고 왔는데, 아트지로 인쇄한 책이었다. 그런데 아트는 풀이 스며들지 않는 데다가 책 역시 두꺼워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인쇄사에서는 다른 제책사에 PUR작업을 맡기는 동시에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는 왜 너희는 이것을 못하냐며 호통을 쳤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다른 제책사에서 PUR 작업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종이가 모두 떨어져 수천만 원을 물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로서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수천만 원의 교훈을 얻은 셈이다. 이후에는 제작을 의뢰받는 경우 어떤 종이를 사용하는지, 매수는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또 한 번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인쇄물을 PUR 제책을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지도가 포함된 인쇄물이었는데, 핫멜트로 작업하면 중간부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

펼침이 가능한 PUR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종이를 물어보니 아트지라고 해서 거절했다. 그러자 입찰내역에 PUR 제책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종이가 떨어진다면 자기가 붙이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PUR 제책을 해야 한다고 부탁해 작업을 하게 됐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인지 다행히도 완벽한 책을 공급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내에는 PUR전문업체가 거의 없다. 우리 회사는 PUR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3일내에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인쇄사 사장들에게 거래하는 제책 업체에서 계속 일을 진행하되 급히 PUR제책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회사에 맡겨 달라고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우리 회사를 조금씩 알려나가고 있다. 많은 제책사들이 단가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가격이 아닌 품질과 확실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갈 것이다.

PUR 제책의 장점은?

PUR은 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완전 펼침을 실현할 수 있는 제책기법이다. 이러한 완전 펼침은 좌우 양면에 이어지는 이미지를 편 잡하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글을 쓰는데 더욱 편리하도록 가계부, 다이어리 등에도 적용하고 있다. 물론 PUR에 사용되는 풀의 가격은 핫멜트에 비해 약 2배에 달하지만 앞으로 풀의 가격이 낮아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책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PUR이 사용되고 있어 성장가능성이 있는 분야다.